

화재 예방과 소방 정보의 대중화에 공헌



이 윤 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FC대체기술센터. 한국소방학회 회장)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룩한 장족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커다란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돌이켜 보면 화보협회가 창립되던 20년전 우리 나라는 오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공감대 위에 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 일변도의 시기였기에 방재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물리고 일반 국민의 의식도 높지 않았던 때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창립한 이래 지난 20년간 방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방재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재 예방과 소방 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한 화보협회의 공헌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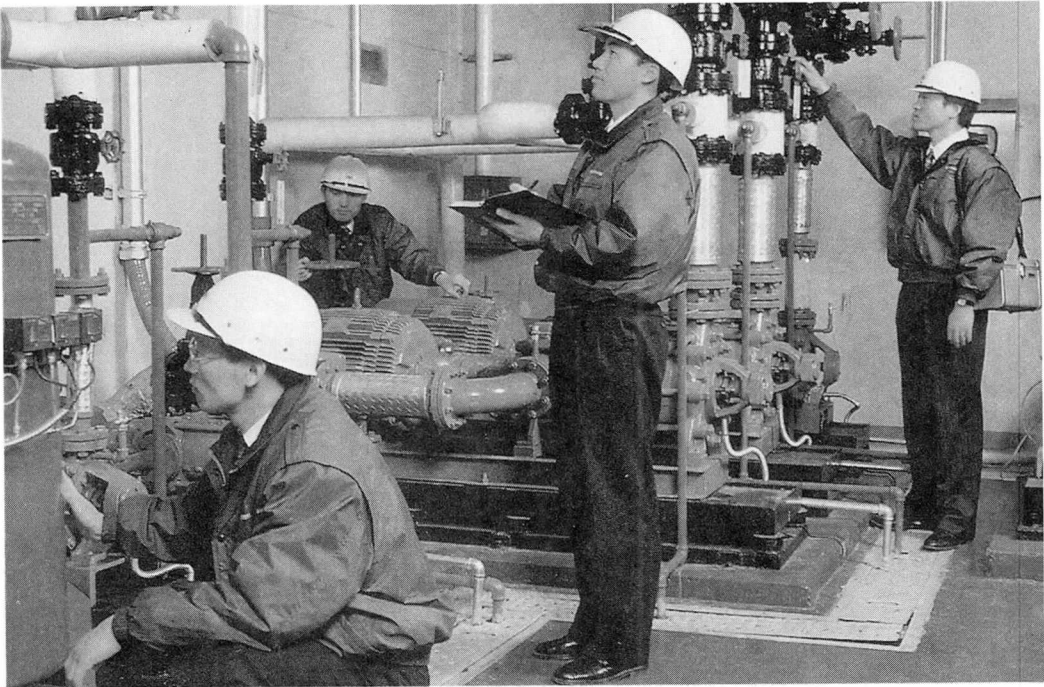
또한 방재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방화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재시험연구소를 설립하여 방재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보협회의 사회적·국가적인 기여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과 더불어 보다 커질 것이 확실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30년전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고층 건물과 대형 산업 시설이 날로 증가하여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할 국가적 재산을 엄청나게 보유한 나라로 성장했음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활 수준의 향상은 생활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주거 공간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전기, 유류, 가스 및 가연성 화공 약품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방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방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국민의 방화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홍보는 방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화재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재해

에 끝나지 않고, 지역적인 재해로 대형화되고, 우리 산업의 재해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방재도 수동적인 방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재 태세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방재도 우리의 경제개발과 축을 같이 하면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방재의 과학화와 방재 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 우리의 방재 기술 개발 역사는 매우 일천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방재 기술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정부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화재 예방 및 방재 기술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방재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특히 약 100년의 설립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안전 기준의 제정, 방재 정보·정기 간행물의 발간, 조사, 연구 및 기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서 방재에 관한 NFPA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는 명성을 듣고 있다.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는 실물대의 화재 시험 시설을 이용 각종 방재 시설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며, 현재 중요한 방재 시설의 하나인 스프링클러설비도 이 FMRC에서 개발한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 대학에 방재학에 관한 학문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화보협회가 설립한 방재시험연구소가 우리나라의 방재 과학과 방재 기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센서의 개발, Halon 대체 시스템의 개발, 최근 선진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Fine Water Misting 기술, 에어로졸 소화제, 컴퓨터에

의한 조기 화재 진화 시스템의 개발 등 그 연구 개발 대상은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 나라의 유일한 방재시험연구소가 이러한 새로운 방재 기술 개발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방재 전문가의 두뇌 집단으로서 우리나라 방재에 큰 기여가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류의 문명은 불의 힘을 이용하면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불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의 힘을 제어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큰 불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큰 문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방재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화보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위험 관리 시설 지침을 마련하고, 산업체의 방재 관리자에게 방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화 관

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체의 유형별 위험 관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보급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아무리 완벽한 방재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경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해별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현실의 재해는 어느 실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자료의 축적과 활용은 보험 업무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끝으로 화보협회의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화보협회가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재산 보호에 더욱 커다란 공헌을 하는 종합 방재 기관으로서 승승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